



율리아 피셔 & 드레스덴 필하모닉
DIE DRESDNER PHILHARMONIE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 정책금융상품, **온렌딩 대출**

온렌딩 대출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정책금융공사(KoFC)의 대표 정책금융상품으로, KoFC가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친화적이고 선진화된 금융상품입니다.



낮은 금리비용

KoFC의 우수한 신용력으로 조성한 저리자금을 지원, 기업의 금리비용 절감에 도움

편리한 이용

기존 거래은행 또는 가까운 은행방문으로 원스톱 서비스 가능

튼튼한 중소기업의 동반자

시설자금 최장 10년, 운전자금 최장 3년의 안정적인 장기 정책자금

온렌딩대출은 귀사가 이용하시기 편리한 아래 은행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렌딩대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금융지원정보 종합포털사이트인 기업금융나눔넷 (<http://www.smeinf.or.kr>)에서 더욱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던 해석이 흉내낼 수 없는
독일 정통 관현악의 품격



지휘 | 미하엘 잔데를링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함께하는
율리아 피셔 & 드레스덴 필하모닉
DIE DRESDNER PHILHARMONIE

바이올린 | 율리아 피셔



바이올린 여신
율리아 피셔의 첫 내한

프로그램 | 바그너 '로엔그린' 3막 전주곡,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2013. 10.30(WED)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VINCERO | 협찬 한국정책금융공사

티켓 R 22만원 S 17만원 A 12만원 B 8만원 C 5만원 | 예매 SAC⁺Ticket 02.580.1300 YES24.COM 1544.6399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02.599.5743

WELCOME TO THE CONCERT

오늘밤,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더불어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명문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필하모닉이 5년 만의 두 번째 내한 투어 공연 (2008년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을 갖습니다. 정규 투어는 아니지만 2007년에는 드레스덴 십자가 합창단과 내한해 바흐 '마태수난곡'을 반주하기도 해서 국내 팬들에겐 친숙한 곳입니다. 전통적으로 드레스덴 필은 담백하고 고풍스러운 동독 특유의 색조로 유명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 드레스덴 필은 '동독을 대표하는 명장' 쿠르트 잔데를링의 아들, 미하엘 잔데를링을 새로운 수장으로 맞아 제2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이번 아시아 투어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미하엘 잔데를링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서 첼리스트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쿠르트 잔데를링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지휘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2001년 베를린 실내 관현악단 지휘로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지휘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2004년 베를린 실내 관현악단 수석 지휘자로 취임했고 2006년 포츠담 실내 아카데미 수석 지휘자 겸 예술 감독으로 임명되면서 지휘계의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2014 시즌부터 드레스덴 필의 음악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색조를 지닌 드레스덴 필의 향취에 더해 청년의 활력을 새롭게 불어넣는 미하엘 잔데를링의 메인 레퍼토리는 아버지도 즐겨 연주했던,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입니다.



© Marco Borggreve



투어의 협연자로는 '21세기 새로운 현의 여제'로 등극한 바이올리니스트 **올리아 피셔**가 처음 한국을 찾았습니다. 힐러리 한, 재난 안선과 21세기 여성 바이올린 트로이카로 호평 받는 올리아 피셔는 2006년 23세의 젊은 나이로 프랑크푸르트 음대 교수로 독일 사상 최연소 취임해서 또 다른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빼어난 바이올린 실력 못지않은 건반 재능으로 피아니스트로도 종종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페에서 하루 밤의 한 연주회에서 생상스 바이올린 협주곡 3번과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의 솔리스트를 맡는 스타트를 선보였습니다. 서울 공연 레퍼토리는 애호가들이 열망해온 명곡,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독일 관현악의 보석 드레스덴 필과 새로운 현의 여제를 한국팬들과 만나게 하기까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고전의 품격을 알아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더 좋은 품질의 공연을 만드는데 빈체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TIQUETTE

- *악장 사이에 지나친 기침은 연주자와 다른 관람자들의 감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헛기침은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각 악장 사이의 박수는 삼가주시고, 마지막 악장이 끝난 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케스트라의 요청으로 휴대전화의 전원은 공연 시작 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리
오
요
바
19
20
30
인
표
교
19
20
30
40
지
바
오



PROGRAM

리하르트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 3막 전주곡

Richard Wagner
Lohengrin - ACT III Prelude 4min

요하네스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77

Johannes Brahms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40min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마논 트로포 비바체

I. Allegro non troppo
II. Adagio
III. Allegro giocoso, ma non troppo vivace

인터미션

INTERMISSION 20min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 F단조, 작품번호 36

Pyotr Ilyich Tchaikovsky
Symphony No.4 F minor, Op.36 45min

1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모데라토 콘 아니마
2악장: 안단티노 인 모도 디 칸초나
3악장: 스케르초-피치카토 오스티나토 알레그로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콘 푸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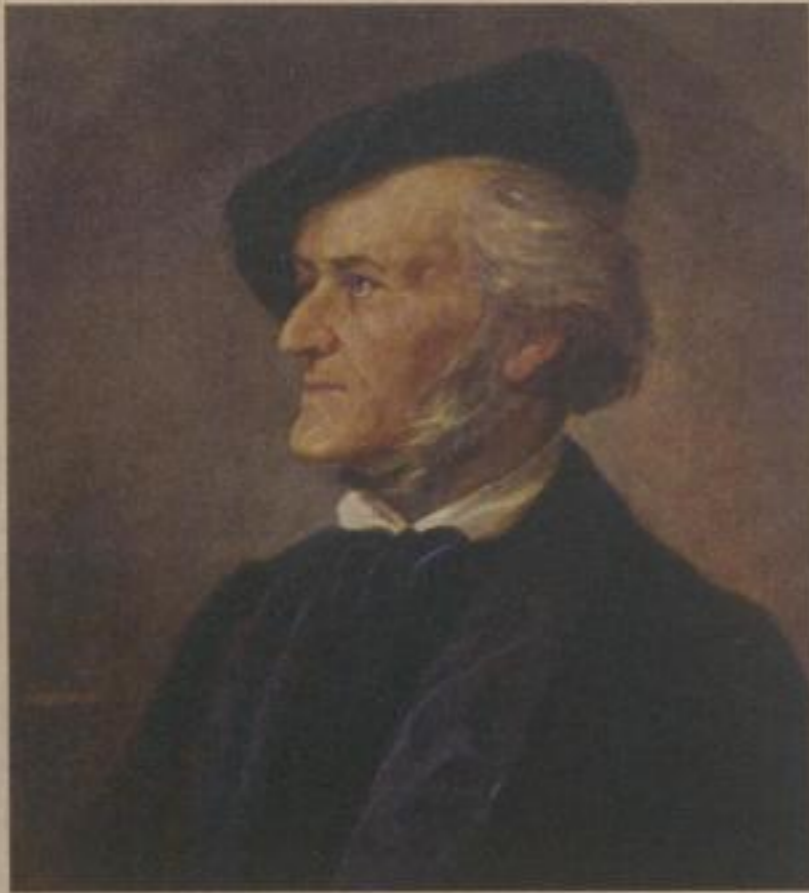
I. Andante sostenuto - Moderato con anima
II. Andantino in modo di canzona
III. Scherzo - Pizzicato ostinato Allegro
IV. Finale, Allegro con fuoco

지휘: 미하엘 잔데를링
바이올린: 율리아 피셔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필하모닉

Conductor: **Michael Sanderling**
Violin: **Julia Fischer**
Orchestra: **Dresdner Philharmonie**



PROGRAM NOTE



[바그너 '로엔그린' 3막 전주곡]

바그너가 '니벨룽의 반지'를 쓰기 전에 만든, 독일의 위대한 마지막 낭만주의 오페라 '로엔그린'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오페라는 화려한 화성을 자랑하는 멜로디와 선율만으로도 유명세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바그너의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비극으로 끝맺는다. 로엔그린이 성스러운 구원자일 뿐 아니라 그런 존재와 인간과의 접촉은 재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표현하려 했기 때문이다. '로엔그린'은 전 3막. 1850년 리스트의 지휘로 바이마르에서 초연되었다. 10세기 전반 브라반트의 왕녀 엘자는 남동생을 죽였다 하여 텔라문트백작에게 고소를 당한다. 이 원죄(冤罪)로부터 그녀를 구조하기 위하여 성배(聖杯)의 기사 로엔그린이 나타나 텔라문트를 무찌른다. 결백한 몸이 된 엘자는 로엔그린과 결혼하게 되는데, 로엔그린은 그녀에게 자기의 신원을 묻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결혼식 날 엘자는 금단의 질문을 하고 만다. 로엔그린은 자기의 신원을 밝힌 뒤 마중 온 백조를 타고 성배가 있는 나라로 돌아가고 엘자는 크게 실망하여 죽는다는 내용이다. 기에는 성배의 기사가 등장한다. 기사는 신비하게 등장해 위기에 처한 엘사라는 숙녀를 보호해주며 자신의 정체를 묻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그녀는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로엔그린은 몬잘바트로 돌아가고 엘사는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엘사를 캐묻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핵심을 놓친 것이다. 오히려 그녀가 던진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었다. 한국에서는 1976년 10월 국립오페라단(쿠르트 뵘스 지휘)에 의해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었다.

3막의 전주곡은 1막의 전주곡에 못지 않은 유명한 곡으로, 개막 전에 연주되는 축훈곡(Epithamism)이다. 처음은 폭발할 것 같은 기쁨의 표현인데 환희의 동기로 시작한다. 이 전주곡은 종래의 오페라 서곡처럼 가극의 내용을 암시 하든가 또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다음 무대에 연결되는 최초의 한 부분으로서 오페라의 전곡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이 특징이다. 목관 금관 심벌즈 등이 나오고, 장중한 트롬본의 테마가 울리면 중간부에서는 현악기와 관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아름다운 움직임 보인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다시 화려하고 웅장한 음악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전개되다가 비극의 동기인 금문의 모티브가 위협하는 것같이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 주면서 끝난다.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베토벤, 멘델스존 협주곡과 함께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분류되는 명작이다. 교향곡 1번, 2번, '대학 축전 서곡' 등의 대표작이 잇따라 완성되었던 장년기의 작품이다. 명바이올리니스트인 사라사테의 연주를 들은 감격이 창작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고 전해지고 있다. 처음은 4악장 형식의 협주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전통적인 3악장 형식으로 완성됐다. 작곡에 있어서는 친구인 명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아힘에게 자주 조언을 청하여 편지나 초고를 보내서 그의 의견을 구하고, 정정이 있은 후 요아힘의 독주로 초연되었다. 전체의 구성은 베토벤의 곡과 같이 고전적이지만 개개악상이나 그 처리는 자못 브람스다운 중후한 남성적인 낭만적 협주곡을 연상케 한다. 관현악의 편성은 4대의 호른 이외는 표준 2관 편성이다. 브람스는 대작을 작곡할 때면 매우 힘들어 했다. 하지만 그가 흘린 땀과 눈물은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 바이올린 협주곡은 요제프 요아힘과의 협력 관계가 절정에 다다른 결과물이었다. 요아힘은 피날레



가 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브람스에게 알레그로 지오코소에 마농 트로포 비바체를 추가하라고 설득했다. 다행히도 훗날 해석자들은 브람스의 템포를 선호했다. 이 협주곡은 무대에 오르기까지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요제프 헬메스버거는 '바이올린에 반대해서' 쓴 곡이라고 말했고 사라사테는 아다지오에서 오보에가 연주하는 동안 바이올린 주자가 멀뚱히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싫어했다. 하지만 요아힘의 제자들인 마리 솔다트와 레오노라 잭슨 등이 곡의 완성에 도움을 주었다.

1악장 - Allegro non troppo

3/4박자 서주는 없고 곧바로 비올라·첼로·파곳이 폭넓고 차분한 1주제를 제시한다. 오보에의 애수를 띤 선율이 이것을 받는다. 이후 성격이 다른 부주제가 몇 개 나타나 이어지고 랩소디적인 악상을 전개하여 가는데 2주제는 불과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열적이고 힘찬 동기가 현에 의해서 연주되고 관현악이 폭풍처럼 고조되는 곳에서 관현악에 의한 제시부를 마치고 독주 바이올린이 정열적으로 등장한다. 관현악이 악기를 바꾸면서 1주제의 동기를 여러가지로 처리하는 동안 독주 바이올린이 장식적으로 엮어가고 이윽고 1주제의 전모를 제시한 뒤 경과부로 들어간다. 여기서는 독주 바이올린의 힘찬 새로운 선율을 교차시키며 이미 나온 악상의 몇 가지가 재현된다. 이어 2주제부로 들어가 악상이 관현악에 부드럽게 재현된 뒤 독주 바이올린이 2주제를 제시한다. 이것이 현악기에 의해서 반복되고 악상이 독주 바이올린에 나타나고 잠시 전개된 뒤 제시부를 마친다. 관현악의 투티가 1주제를 연주하며 전개부로 들어가서 2주제가 이것에 이어진다. 이윽고 독주 바이올린이 한가롭게 도입되어 기교적이기는 하지만 환상풍의 악곡을 전개한다. 힘찬 관현악의 투티에서 재현부로 접어들어 독주 바이올린을 교차시키면서 이미 나온 악상이 원형대로 재현되고 2주제도 완전한 모습으로 재현된 뒤 악상을 거쳐 카덴차로 들어간다. 카덴차는 요아힘 외에도 레오폴트 아우어나 크라이슬러 등의 대 바이올리니스트가 자작하고 있다. 이어 1주제를 바탕으로 한 코다로 들어가면서 끝난다.

2악장 - Adagio

F장조 2/4박자. 세도막 형식. 오보에가 고풍적이고 진지한 주제를 연주하고 독주 바이올린이 이것을 받아 이어서 아름답게 장식하여 간다. 이윽고 악상은 바뀌어 중간부로 들어가서 독주 바이올린이 표정 풍부하게 노래한다. 또다시 오보에가 1부의 주제를 연주하고 독주 바이올린이 이것을 장식한다. 고요한 아름다움을 띤 악장이다.

3악장 - Allegro giocoso, ma non troppo vivace

D장조 2/4. 자유로운 론도 소나타 형식. 독주 바이올린과 관현악이 곧바로 집시 풍의 론도 주제를 제시하고 반복한다. 경과부 뒤, 독주 바이올린이 시원한 1부주제를 연주하고 관현악이 반복된다. 론도 주제가 독주 바이올린으로 재현되어 이를 관현악이 반복한다. 이윽고 Meno mosso(너무 빠르지 않게)의 2부주제 7)가 3/4박자로 도입되어 이 선율을 중심으로 리드미컬한 악상이 전개된다. 이후 1부주제와 론도 주제가 재현된 뒤 이 2개의 주제에 의한 행진곡 풍의 코다에 이르러 독주 바이올린이 화려한 기교를 전개하면서 힘차게 끝난다.

라'
벨로
완
간
그
브라
원죄
악문
고녀
질
있는
등
정
트로
사람
문이
상에

축혼
작한
것이
없는
울리
그리
비
한다.

교향
이다.
었다
인 3
아힘
요아
악상
관현
면 매
협주
날레

PROGRAM NOTE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교향곡 4번은 차이콥스키가 38세 때인 1878년 1월 7일 이탈리아에서 완성했다. 차이콥스키는 그 1년 전인 37세 때 제자이며 부인이었던 안토니나 밀류코바와 이혼한 뒤 그 쓰라림을 잊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 호반에서 요양하기도 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상당히 힘든 상태였다. 이때 후원자 폰 메크 부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교향곡은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36세 때인 1876년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 시절, 차이콥스키는 '백조의 호수'를 발표하며 러시아 음악계에 큰 화제를 몰고 왔다. 이때부터 9살 연상의 부유한 미망인 폰 메크 부인의 경제적 원조를 받게 됐다. 폰 메크 부인은 러시아 최초의 철도를 건설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남편이 6남 6녀의 열두 자녀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자, 자녀들의 교육에 전념하며 조용하게 살아가던 부유한 미망인이었다. 차이콥스키는 교향곡 4번을 1878년 이탈리아 산 레모에서 완성했다. 지금은 산 레모 가요제로 유명한 이탈리아 북서부의 휴양지이다. 차이콥스키는 교향곡 4번의 작곡 도중 폰 메크 부인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이 곡을 당신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이 속에서 당신이 익숙한 생각과 느낌이 반영된 것을 반드시 찾아내리라 믿습니다." 교향곡 4번의 표지에는 '나의 가장 좋은 벗에게'라고 적혀 있다. 이 벗이 폰 메크 부인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교향곡 4번의 초연은 1878년 2월 22일, 모스크바의 러시아 음악협회 연주회에서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의 지휘로 행해졌다.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초연의 성공 소식은 당시 피렌체에 머물고 있던 차이콥스키에게도 전보로 전해졌다. 이후 차이콥스키는 자신의 친구 작곡가 타네예프에게 "이 곡은 내가 작곡한 작품 중 최고"라는 말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한 마디 한 마디 내가 진실히 느낀 것을 표현했고 깊게 숨겨진 마음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내용에서 이 작품에 쏟은 차이콥스키의 열의가 느껴진다. 변화무쌍하며 정열에 차있는 이 작품은 외로움을 비롯해 운명 앞에서 어찌할 도리 없는 인간의 감정이 묻어나기도 한다. 2악장은 애상적이지만 밝은 전원풍 춤곡의 분위기를 보여주며,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느끼는 적절한 기분, 정신적 피로에 지친 분위기 도 엿볼 수 있다. 불행한 결혼이 자신의 운명을 할켄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듯 애상적이다.

1악장 - Andante sostenuto - Moderato con anima

서주는 소나타형식이다. 호른과 바순만의 최강주로 격렬하게 나오는 선율은 전곡의 중심적인 운명을 나타내며 이것이 반복되면서 확장된다. 주부로 들어가서 모데라토 콘 아니마로 시름에 잠긴 듯한 괴로움을 표현하는 1주제와 클라리넷으로 표현하는 감미로우면서 서정적인 2주제가 이어진다. 2개의 주제가 여러 갈래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괴로움, 그리고 이와는 상반된 꿈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한 분위기가 교차한다. 차이콥스키는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1악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들의 교향곡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주는 이 교향곡 전체의 핵심과 정수입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즉, 행복의 추구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막고 평화와 위안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라든지, 늘 구름이 끼어 있는 하늘 같은 숙명적인 힘입니다. 머리 위에 언제나 달려있는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흔들리며 영혼에 끊임없이 독을 부어 넣는 운명의 힘입니다. 이 힘은 압도적이며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복종하여 잠잠히 불운을 슬퍼할 길밖에 없습니다."

2악장 - Andantino in modo di canzona

차이콥스키 특유의 애상적이지만 밝고 북방적인 전원 춤곡의 분위기다. 한편,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적적한 기분과 아울러 피로에 지쳐있던 분위기도 엿볼 수 있다. 오보에가 처량하고 외로운 선율을 내고 이것이 발전되며 흥분에 가득 찬 선율로 이어진다. 점점 강하게 밀어붙이는 현과 관의 조화가 선명하다. 플루트의 춤추는 듯한 선율과 농밀한 현의 대화 가운데 선율은 여전히 쓸쓸함을 드러낸다. 이어 거친 농민의 춤 혹은 러시아 무곡이라고 할 만한 소박하면서 쾌활한 주제가 중간부를 이루며 거칠고 단단한 클라이맥스에 다다른다.

후반부에는 느리고 목가적인 주제로 어두운 색조를 표현해주면서 조용히 끝난다. 차이콥스키는 2악장에 대해 "일에 지쳐 쓰러진 자가 밤중에 홀로 앉았을 때 그에게 감도는 우울한 감정입니다. 읽으려고 든 책은 그의 손에서 떨어지고 많은 추억이 샘솟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모두 지나가 버렸고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것이겠습니까?"라고 폰 메크 부인에게 썼다.

3악장 - Scherzo - Pizzicato ostinato Allegro

현악기 전체의 피치카토로 시작되는데, 몽상적이면서 거칠고 향량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이어 현악기는 침묵하여 목관악기만이 러시아 민속무용과 같은 유쾌한 가락을 탄다. 그것이 멈추고 금관만이 행진곡풍의 고른 음을 낸다. 목관은 도중에 들어와 두 번째 부분과 중첩된다. 이어 첫 부분과 같이 현악기만이 피치카토로 으뜸선율을 내다가 목관이나 금관이 참여하여 지금까지의 선율을 단편적으로 전개시켜 종결부로 발전하다가 끝난다.

3악장에 대한 차이콥스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3악장은 이렇다 할 뚜렷한 정서나 확정적인 표출도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얼큰히 취했을 때 우리들의 뇌리에 스며들어 오는 어렴풋한 모양입니다. 이 공상 속에 취한 농부와 흄냄새 풍기는 민요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멀리서 군악대가 지나가는 울림이 들립니다. 이것은 모두 잠자는 사람의 머리 속의 상상입니다. 현실과는 관계없는 혼란입니다."

4악장 - Finale, Allegro con fuoco

자유스러운 론도 형식으로 힘찬 박력과 빛나는 색채감이 나는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숨 가쁜 강렬한 1주제가 나오고 이어지는 2주제는 러시아 민요에 의한 소박하고 아름다운 선율이다. 다시 1주제가 격렬하게 등장하고 난무하는 3주제가 나타난다. 이 세 주제는 교대로 나와 각각 서로 얽혀 발전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1악장의 서주에 나온 주선율이 안단테를 위협하듯이 나타난다. 다시 원래의 알레그로로 돌아가서 3개의 주제가 광적이고 강렬한 종결부를 형성하며, 희열이 극에 달한 클라이맥스로 끝난다.

4악장에 대해 차이콥스키는 "자신 속에 환희를 찾지 못한다면 주위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즐거워하고 환락에 몸을 던질까요. 그들의 감정은 소박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행복은, 단순하고 소박한 행복은 아직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기뻐하십시오." 불행한 운명의 수레바퀴 아래에 있었지만 행복을 느끼고 싶어 했던 인간 차이콥스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왠지 마음이 짠해진다.

다. 차
흔한
여유
이 교
시절,
때부
부인
자녀
한 미
다. 지
향곡
싶습
습니
메크

서니
은 당
는 자
긴 편
을 반
진다.
리 없
분위
위기
듯 애

곡의
이라토
는 감
인간
다. 차
있다."
과정
평화와
니다.
을 부
것에

CONDUCTOR



지휘 | 미하엘 잔데를링

1967년 동베를린 태생의 독일 지휘자 겸 첼리스트. 명문 음악가 출신으로 아버지는 쿠르트 잔데를링 이복 만형 토마스과 동생 슈테판도 지휘자이다. 한스 아이슬러 음대에서 첼로를 공부하고 1987년 마리아 카날스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요요 마와 베른하르트 그린하우스 윌리엄 플리스를 사사했다. 또한 라이프치히 바흐 콩쿠르와 ARD 콩쿠르에 입상했다. 불과 20세의 나이로 쿠르트 마주어에게 인정받아 1988-92년까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리스트를 맡았다. 1994-1996년까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객원 첼리스트로 활동했다. 솔로 첼로주자로선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빈 심포니,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LA 필과 협연했다. 실내악 주자로 울리아 피

서, 다니엘 뮐러 쇼트와 자주 호흡을 함께 했으며 라이프치히 현악 4중주 단으로도 활동했다. 첼리스트로선 솔레스비히 홀슈타인 페스티벌, 루체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출연했고 베를린산 첼로 마티아스 그레신을 썼다. 1994-1998년 까지 베를린에서, 2000-2004년까지 베른에서 첼로 교수직을 수행했으며 이후에는 프랑크푸르트 고등 음악 학교에서 첼로 교수로 임명되었다.

지휘자 데뷔는 2001년 11월 베를린 필하모닉홀에서 베를린 실내 관현악단을 지휘하면서 데뷔했고 2003년부터 유스 오케스트라인 독일 현악 필하모닉(Deutsche Streicherphilharmonie), 2004년부터 베를린 실내 관

현악
석 자
송 교
악단
라이
브루
트라

이 기
예프
블에
은 관
슬러
처음
201
하모

미하

// 드
다. 처
서기
다. 이
할까
소리

// 돌
매우
니다
다. 단
런 기
덴 필
다. 도
지 입
계화
있었

// 전
른 관
지금
여 주
현대
다. 고
다. 종
말하

Prin

Born
pro

현악단의 수석 지휘자로 취임했다. 2006-10년 포츠담 실내 아카데미 수석 지휘자 겸 예술 감독으로 활동했다. 그동안 취리히 톤할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네덜란드 필하모닉,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라이프치히 MDR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노버 북독일 방송 필하모닉, 자르브뤼켄 방송 교향악단,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명 오케스트라에 자주 초청되었다.

이 가운데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와의 함께한 쾰른 오페라 프로코피예프 '전쟁과 평화'(2011) 지휘는 그의 명성에 날개를 달았다. SONY 레이블에서 쇼스타코비치 작품을 녹음했으며 젊은 음악가의 지도,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드레스덴 필과의 관계는 198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7, 90, 94년에 첼로 객원 솔리스트를 역임했고 2004년에 처음 지휘를 맡았다. 그리고 11/12 시즌 수석 지휘자로 취임했다. 2013/2014 시즌에는 뮌헨 필, 요미우리 일본 교향악단, 쾰른 방송 교향악단,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스케줄을 밟고 있다.

미하엘 잔데를링 어록

// 드레스덴 필에 수석 지휘자로 부임하기전 저는 솔로 첼리스트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처음 드레스덴 필을 지휘한 건 8년전의 일인데요. 전통이라는 의미에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악단으로 꼽히고 드레스덴 사운드를 기본으로 하는 특별한 악단입니다. 어둡고 풍부한 소리를 냅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감동을 자아내는 소리라고나 할까요. 어떤 지휘자도 드레스덴 필을 지휘하면 사운드에 놀랄 겁니다. 저 역시 먼저 소리에 압도됐고 전통을 함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 물론 전통만으로 특별한 소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드레스덴은 보헤미아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19세기 음악사에서, 보헤미안의 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드보르자크와 스메타나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리엔 깊이와 농도가 있습니다. 단순한 민족음악이 아니라 소리 자체의 깊이와 무게 그리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력을 갖고 있는 음악가들이 드레스덴 소재 악단에는 다수 있습니다. 드레스덴 필의 음색을 '독일 특유의 음색'(deutsche wunderHauch)으로 부르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독 시절 40여년 동안 드레스덴은 주변의 정치 상황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유럽이 세계화되는 동안 음악의 전통을 유지하는 드레스덴은 세계화에 무관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리의 독자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전통이란 것이 양날의 검입니다. 언제나 같은 연주 스타일을 답습하고 있으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루하거나 시시한 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드레스덴 필 단원들은 지금까지 구축된 주법을 지키는 대전제 속에서 개별 곡목의 가능성을 넓게 받아들여 주법의 디테일을 명확하게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 곡이 고전인가, 바로크인지, 근현대, 컨템퍼러리인지에 따라 주법의 디테일을 고민하면서 연주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고마운 것은 하드한 연습에도 단원들이 그것을 즐기면서 따라와준다는 것입니다. 중부 유럽의 음악 질서를 지난 20-30년간 풍미한 '본류 추구'의 경향이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Principal conductor | Michael Sanderling

Born and educated in Berlin, Michael Sanderling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conductors of his generation. His 2005 debut conduct-

ing the Dresden Philharmonic marked the beginning of regular and close artistic collaboration with the tradition-steeped orchestra. At the beginning of the 2011/12 concert season Michael Sanderling was named Principal Conductor of the Dresden Philharmonic.

Sanderling has worked with many leading international orchestras including the Tonhalle-Orchester Zürich, Sinf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the Münchner Philharmoniker, the Sächsische Staatskapelle Dresden, the Konzerthausorchester Berlin, the Radio-Sinfonieorchester Stuttgart, the Gürzenich Orchester Köln and the Nederlands Philharmonisch Orkest.

In forthcoming seasons he will also give a series of important debut performances such as with the Gewandhausorchester Leipzig, the WDR Sinfonieorchester Köln, the Bamberger Symphoniker, the Yomiuri Nippon Symphony Orchestra, the Orchestre Philharmonique de Monte-Carlo, the National Philharmonic Orchestra Taiwan and Philharmonia Orchestra London.

Recent high points in his career include return engagements to conduct the Konzerthausorchester Berlin, the Radio-Sinfonieorchester Stuttgart, the NDR-Radiophilharmonie Hannover, the Orquesta Nacional de Porto, the Frankfurter Opern- und Museumsorchester, the MDR-Sinfonieorchester Leipzig and Tonhalle-Orchester Zürich. His conducting of Sergei Prokofiev's "War and Peace" at the Cologne Opera was met with the highest acclaim from press and public alike.

As Artistic Director and Principal Conductor of the Kammerakademie Potsdam, from 2006 to 2010 Sanderling performed at international concert venues and recorded several CDs with the ensemble, including the chamber symphonies of Dmitry Shostakovich on the SONY Classical label. In 2010 he founded "Skyline Symphony" in Frankfurt/Main - a collaboration of Europe's leading orchestra players who join together in performing special classical music concerts on the campus of the Goethe University geared to younger audiences in an easily accessible setting free of formal convention.

Michael Sanderling's early musical training was on the cello. After successfully participating as a cellist in several competitions (the ARD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Munich, the Johann Sebastian Bach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Leipzig and the Maria Canals Competition Barcelona), when only 19 Sanderling was engaged by Kurt Masur as principal cellist with the Leipzig Gewandhausorchester. Sanderling was subsequently also principal cellist of the Rundfunk-Sinfonieorchester Berlin for many years. He has made guest appearances as a cello soloist with top-flight orchestras throughout Europe and the US, including the Sinf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the Orchestre de Paris and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4중주
체른,
썼다.
로 교
교수

관현악
악 필
내 관

VIOLINIST



바이올리니스트 | 울리아 피셔

21세기 새로운 현의 여제

울리아 피셔는 1983년 독일 뮌헨 태생이다. 어머니가 피아노에 능했고 아버지는 수학자였다. 4살 무렵에 바이올린 레슨을 먼저 받기 시작했고 몇 달 뒤엔 피아노 레슨도 시작이 됐다. 줄리아는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고 그래서 나도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했지만 오빠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악기를 택하면 멋진 가족 연주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머니의 의견을 따라 바이올린 배우기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바이올린 수업은 아우구스부르크의 모차르트 음악원과 뮌헨 음악아카데미에서 받았다. 이 무렵 그녀는 글렌 굴드, 키신, 벤게로프 같은 천재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12살 때인 1995년, 메뉴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과 바흐 독주곡 연주 특별상을 받았고, 이듬해엔 제8회 유러비전 청소년 콩쿠르에서 역시 우승했으며, 1997년엔 유럽 산업기구가 주는 <Prix d'Espoir, 희망 상>을 받았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때는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트 생가에서 모차르트가 사용하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행운도 차지했었다. 지금까지 모두 8개의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다. 이후, 울리아의 연주 무대는 전세계로 전개되어 독일, 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일본,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연주하고 있으며 로린 마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야코프 크라이즈버그, 유리 테미르카노프, 네빌 매리

너, 다
키, 하

200
수록
표되
은 “
이올
월, 클
하모
생상
케스
있다
에서
도 지

Viol

Ger
ing a
ist, r
rece
bein
and

The
at Ko
Conc
Brah
Fisch
was
statie
exam
will s
sche
Hall,

Coin
certo
emb
and
was
Beet
Salon
impr

너, 데이비드 진만, 즈데넥 마칼, 윤 메르클, 루벤 가자리안, 마렉 야노프스키,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마이클 탈슨 토마스 등과 협연했다.

2004년, PentaTone 레이블에서 러시아 작곡가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수록한 첫 음반(지휘 : 야콥 크라이즈베르그, 러시아 국립 교향악단)이 발표되었다. 이 음반은 독일에서 베스트 셀링 디스크 5위에 올랐고 그라모폰은 "편집장 추천, Editor's Choice"에 선정했다. 잇달아서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 소나타, 모차르트와 차이콥스키의 협주곡을 발표했다. 2008년 1월, 줄리아는 피아니스트로 데뷔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용에 도이치 필하모닉과 그리그의 협주곡을 연주한 것이다. 잇달아서 이 오케스트라와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3번도 연주했다. 줄리아의 레퍼토리는 40여곡의 오케스트라 작품과 60여곡의 실내악 작품 등 매우 폭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올린은 1716년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일본 음악재단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에 구입한 과다니니(1742년 제작)도 지니고 있다.

Violin | Julia Fischer

German violinist Julia Fischer is recognized worldwide for possessing a talent of uncommon ability and as an exceptionally gifted artist, reflected in the numerous awards and effusive reviews she has received for both her live performances and recordings, including being named "Artist of the Year" at The Gramophone Awards in 2007 and "Instrumentalist of the Year" at the 2009 MIDEM Classical Awards.

The season 2012-13 marked Julia Fischer tenure as Artist in Residence at Konzerthaus Berlin; under the baton of the orchestra's new Chief Conductor Ivan Fischer, she opened the orchestra's season with Brahms' Double Concerto. A recital and an appearance with the Julia Fischer Quartet in June 2013 completes her residency. The Quartet was founded by Ms. Fischer in the 2011-12 season and garnered ecstatic acclaim from public and critics alike for Ms. Fischer, violinist Alexander Sitkovetsky and cellist Benjamin Nyffenegger. Future seasons will see the Quartet touring through Europe, debut appearances are scheduled amongst others at the Prague Spring Festival, Wigmore Hall, Musikverein Wien and Philharmonie Luxembourg.

Coinciding with Decca's release of the recording of Bruch's Violin Concerto No. 1 and Dvorak's Violin Concerto in spring 2013, Julia Fischer embarked on a tour of Germany with the Tonhalle Orchestra Zurich and David Zinman. Another highlight of Ms. Fischer's 2012-13 season was her debut with the Vienna Philharmonic Orchestra with both, the Beethoven and Salonen Violin Concerto under the baton of Esa-Pekka Salonen in April 2013 - "a debut which could not have been more impressive" as Austria's Die Presse attested.

In the 2013-14 season, Julia Fischer will be Artist in Residence at the Dresdner Philharmonie and Wigmore Hall is dedicating to her a Perspective Series. She will perform at New York's Carnegie Hall with the St. Petersburg Philharmonic, tour Europe with the San Francisco Symphony and Asia with the Dresdner Philharmonie as well as appear in recitals in major European venues including Musikverein Wien, Palais des Beaux-Arts in Brussels and the Berlin Philharmonie.

In 2011, Decca released 'Poème' featuring Chausson's Poème, Respighi's Poema Autunnale, Suk's Fantasy in G minor and Vaughan Williams's The Lark Ascending to great critical acclaim. This highly poignant album is also the last recording of the late Yakov Kreizberg - a close collaborator of Ms. Fischer for years - conducting the Orchestre Philharmonique de Monte Carlo. The recording was featured on the quarterly "Bestenliste" of the prestigious Preis der Deutschen Schallplattenkritik.

This recording was preceded by the fall 2010 release of Paganini's 24 Caprices and her 2009 recording for Decca of Bach violin concertos with the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Previous recordings were released on the PentaTone label. Her debut CD, a recording of Russian Violin Concertos by Khatchaturian, Prokofiev and Glazunov with the Russian National Orchestra under Yakov Kreizberg, won Germany's coveted ECHO Award in 2005. Ms. Fischer recorded Bach's Sonatas and Partitas for Solo Violin in 2005 and this recording earned worldwide critical praise including the rare distinction of winning three of France's most prestigious awards: the Diapason d'Or; the CHOC from Le Monde de la Musique; and the highest rating from Classica Repertoire. The Bach recording also saw her awarded the BBC Music Magazine Award as "Best Newcomer" in 2006. In 2007, her Tchaikovsky Violin Concerto recording saw her awarded the ECHO award for "Instrumentalist of the Year".

Born in Munich in 1983, Ms. Fischer began learning the violin at age three and soon thereafter started taking piano lessons. She became a pupil of Ana Chumachenco at the Munich Academy of Music and at just 11-years-old won the Yehudi Menuhin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an event that catapulted her towards a career as a soloist. Throughout her career, Ms. Fischer has always maintained her piano studies. On January 1st, 2008 she made her professional piano debut at the Alte Oper Frankfurt performing the Grieg Piano Concerto with the Junge Deutsche Philharmonie and conductor Matthias Pintscher. On the same program, she performed the Saint-Saëns Violin Concerto No. 3. A DVD of this concert, recorded by Unitel Classica, was released by Decca in September 2010.

독주
서역
광상
에서
공까지
계로
드, 노
젤, 크
매리

DRESDNER PHILHARMONIE

Michael Sanderling | Principal Conductor

Markus Poschner | First Guest Conductor

Kurt Masur | Honorary Conductor

Anselm Rose | General Manager

Martin Bülow | Director of Administration

First Violin

Ralf-Carsten Brömsel *

Heike Janicke *

Dalia Schmalenberg

Anna Fritzsich

Julia Suslov-Wegelin

Heide Schwarzbach

Christoph Lindemann

Marcus Gottwald

Ute Kelemen

Antje Bräuning

Johannes Groth

Annegret Teichmann

Thomas Otto

Eunyoung Lee

Denise Nittel

Fanny Fröde **

Second Violin

Markus Gundermann *

Markus Hoba *

Günther Naumann

Reinhard Lohmann

Viola Marzin

Steffen Gaitzsch

Heiko Seifert

Andreas Hoene

Andrea Dittrich

Constanze Sandmann

Jörn Hettfleisch

Angelika Feckl

Katrin Sander

Maria Brunner **

Viola

Christina Biwank *

Hanno Felthaus *

Beate Müller

Steffen Seifert

Steffen Neumann

Heiko Mürbe

Hans-Burkart Henschke

Andreas Kuhlmann

Tilman Baubkus

Irena Dietze

Friederike Flemming

Sophia Gulde **

Violoncello

Matthias Bräutigam *

Ulf Prella *

Victor Meister

Petra Willmann

Thomas Bäß

Rainer Promnitz

Karl Bernhard von Stumpff

Daniel Thiele

Bruno Borralhinho

Hans-Ludwig Raatz

Bass

Benedikt Hübner *
 Soo Hyun Ahn * **
 Tobias Glöckler
 Olaf Kindel
 Thilo Ermold
 Donatus Bergemann
 Matthias Bohrig
 Ilie Cozmatchi

Flute

Karin Hofmann *
 Christian Sprenger * **
 Claudia Rose
 Tünde Molnár-Grepling **

Oboe

Johannes Pfeiffer *
 Undine Röhner-Stolle *
 Guido Titze
 Isabel Kern

Clarinet

Fabian Dirr *
 Felix Löffler * **
 Henry Philipp
 Klaus Jopp

Bassoon

Daniel Bätz *
 Philipp Zeller *
 Robert-Christian Schuster
 Michael Lang

Horn

Michael Schneider *
 Hanno Westphal *
 Torsten Gottschalk
 Johannes Max
 Dietrich Schlät
 Carsten Gießmann

Trumpet

Andreas Jäinz *
 Csaba Kelemen
 Björn Kadenbach

Trombone

Matthias Franz *
 Stefan Langbein *
 Peter Conrad
 Dietmar Pester

Tuba

Jens-Peter Erbe **

Harp

Marlene Angerer **

Timpani

Oliver Mills
 Harald Persicke **

Percussion

Gido Maier
 Alexej Bröse
 Philipp Kohnke **

* *Principal*

** *Substitutes*

Director of Administration, Martin Bülow

Consultant Music Director, Alexandra MacDonald

Orchestra Operations, Almut Placke

Orchestra Staff

Matthias Albert, Gerd Krems,
 Jens Eichler, Matthias Richter

ORCHESTRA

오케스트라 | 드레스덴 필하모닉

진중헌 통독 사운드, 명장의 숨결이 그대로 숨 쉬는 명연의 보고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다방이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명문 오케스트라, 2007년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의 '마태 수난곡' 반주로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고 2008년 리마델 프뤼켄 데 부르고스 & 미사 마이스키와 한국 투어를 함께 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색조를 지닌 드레스덴 필의 향취로 음악 그 자체를 즐기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웠다. 드레스덴 필하모닉(Dresdner Philharmonie)은 독일 드레스덴에 위치한 관현악단이다. 1870년에 창단된 드레스덴 필하모닉 관현악단은 1870년 11월 29일 첫 번째 콘서트를 치렀으며 드레스덴 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시작한 1915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공연장의 이름을 따서 게베르크 '공장'이라는 뜻으로 오케스트라로 불리다가 1915년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닉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거 동독 시절에는 문화 궁전(Kulturpalast)을 주 공연장으로 사용했다.

영문 오케스트라급에 수많은 거장들이 이 악단과 함께 하였다. 보람스, 차이콥스키, 드보르자크, R. 슈트라우스 등이 자신의 곡을 지휘 하였으며, 1934년부터는 파울 반 쾨른, 카말 슈리히트가 음악감독을 맡았고, 1945년 이후에는 쿠르트 마주어, 간터 헤르비히, 헤르베르트 케겔, 미셸 플라송 같은 거장들이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드레스덴의 전통을 쌓았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인 마렉 야노프스키가 음악감독을 역임했다. 2004-5 시즌부터는 거장 리마델 프뤼켄 데 부르고스가 상임지휘자로 활동했고 2011/12 시즌부터 마하엘 잔데롤링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오랜 동안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 온 거장 쿠르트 마주어는 거장지휘자(Laureate Conductor)로 칭송을 받고 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공연장으로 유명한 뉘른베르거스트(문화궁전)에서 연 80회 이상의 연주를 하고 있으며, 드레스덴 시민의 자랑거리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 독일 통일 이후에 새로운 콘서트 홀을 건축하지는 않았지만 각계에서 밀려 들어왔다. 하지만 마렉 야노프스키가 상임 지휘자의 자

에서 물러나는 2004년, 새로운 홀의 건립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자신의 사임 이유라고 밝히고 나서자 건립 과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오케스트라는 문화 궁전 외에도 크로이츠 교회(Kreuzkirche)와 드레스덴 음악대학, Schloss Albrechtsberg 등을 연주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 단체로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합창단과 드레스덴 필하모닉 챔버 콰이어가 있다.

DRESDNER PHILHARMONIE

Principal Conductor: **Michael Sanderling**
 Honorary Conductor: **Kurt Masur**
 First Guest Conductor: **Markus Poschner**

Upon being founded in 1870, the Dresdner Philharmonie brought a new spirit to the city's public music culture with its performances at the "Gewerbehauseaal". The orchestra remains true to this tradition today. As the city's orchestra, the Dresdner Philharmonie is conscious of its obligation to a diverse audience. In addition to its classical-romantic core repertoire, the Dresden Philharmonic has always been open to performing contemporary compositions. The orchestra continues this trend today with recently commissioned works from Sofia Gubaidulina, Rodion Shchedrin, Gija Kancheli, and Michael Nyman.

Noteworthy conductors and soloists regularly gave guest performances with the Dresdner Philharmonie. Johannes Brahms, Peter Tchaikovsky, Antonin Dvorak and Richard Strauss came to conduct their own works. In later years this included artists like Hermann Abendroth, Eduard van Beinum, Fritz Busch, Eugen Jochum, Joseph Keilberth, Erich Kleiber, Hans Knappertbusch, Franz Konwitschny or Arthur Nikisch. In recent times the orchestra has worked with guest conductors such as Marc Albrecht, Dennis Russell Davies, Miguel Harth-Bedoya, Kristjan Järvi, Michail Jurowski, Dimitri Kitajenko, Yakov Kreizberg, Sir Neville Martin, Wayne Marshall, Kurt Masur, Ingo Metzmacher, Andris Nelsons, Markus Poschner, André Previn, Karl-Heinz Steffens, Yuri Temirkanov, Yan Pascal Tortelier, Sebastian Weigle, Simone Young and Lothar Zagrosek. Regular guest appearances by soloists such as Rudolf Buchbinder, Julia Fischer, Kiril Gerstein, Matthias Goerne, Vadim Gluzman, Martin Grubinger, Håkan Hardenberger, Michaela Kaune, Anne-Sophie Mutter, Daniel Müller-Schoft, Faal Say, and Jean-Yves Thibaudet have also enriched the orchestra's repertoire. In 1909 the Dresdner Philharmonie became one of the first German orchestras to perform a concert tour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n concert tours have taken the Dresdner Philharmonie to the major music centers of Europe, the Americas and Asia. Michael Sanderling, Principal Conductor since 2011/12, will lead the Dresdner Philharmonie this season on tours to Mainland China, Hong Kong, Macau, Korea, Denmark, Spain and to the leading Central European music centres including Cologne, Munich and Vienna.

역대 음악감독

- 1대 1870-1885 헤르만 민델리트 Hermann Mindelitt
- 2대 1885-1886 미카엘 짐머만 Michael Zimmermann
- 3대 1886-1890 에른스트 슈탈 Ernst Stahl
- 4대 1890-1903 아우구스트 프렌켈러 August Frenckler
- 5대 1903-1915 빌리 올센 Willy Olsen
- 6대 1915-1923 에드윈 린더 Edwin Lindner
- 7대 1923-1924 요세프 구스타프 Joseph Gustav Maxcek
- 8대 1924-1929 에두아르트 뉘키에 Eduard Nuikie
- 9대 1929-1932 파울 사인플루크 Paul Scheinflug
- 10대 1932-1934 베르너 라덴리크 Werner Ladewig
- 11대 1934-1942 파울 반 쾨른 Paul van Kemper
- 12대 1942-1944 칼 슈타이틀 Carl Stuehlitt
- 13대 1945-1946 게르하르트 바이켄후터 Gerhart Wieserhutter
- 14대 1947-1964 헤인츠 본가르트 Heinz Bongartz
- 15대 1964-1967 호르스트 포스터 Horst Fostler
- 16대 1967-1972 쿠르트 마주어 Kurt Masur
- 17대 1972-1976 콘도 헤르비히 Condt Herbihi
- 18대 1977-1985 헤르베르트 케겔 Herbert Kegel
- 19대 1986-1994 요르그 피터바이글 Jörg-Peter Weigle
- 20대 1994-2001 미셸 플라송 Michel Plasson
- 21대 2001-2004 마렉 야노프스키 Marek Janowski
- 22대 2004-2011 리마델 프뤼켄 데 부르고스 Rimael Fruenck de Burgo
- 23대 2011-현재 마하엘 잔데롤링 Michael Sanderling



유구한 전통의 무게를 간직한 독일 앙상블의 위엄

글: 이영진 (의사, 음악 칼럼니스트)

관객들은 탄성을 금치 못했다.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의 관현악 도입부부터 앙코르인 히메네스 오페라 '루이 알론소의 결혼' 간주곡까지 그들이 토해내는 소리는 그야말로 우렁차고 우람하며 꿈틀꿈틀 힘이 넘쳤다. 현대성이라는 명목 하에 오케스트라 고유의 음빛깔이 탈색화되고 있는 즈음, 2008년 6월 내한하여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고 간 독일의 명문 악단 드레스덴 필하모닉이 5년 만에 다시금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신세기의 명장 미하엘 잔데를링과 함께.

엘베 강변 평지에 신록이 덮인 언덕이 솟아있고, 그 땅이 푸른 하늘과 연결되는 작센주의 한가로운 중심 도시 드레스덴.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와 함께 이 고도(古都)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인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사운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까. 미하엘 잔데를링은 드레스덴의 지역적 특징에서 근원을 유추한다. "드레스덴은 지리적으로 보헤미아 부족이 살았던 곳과 가까웠습니다. 아시다시피, 19세기 음악사에서 보헤미아 민족 음악이 차지하는 몫은 매우 큼니다. 드보르자크, 스메타나 등이 상징적인 인물들이지요. 그들은 깊고도 진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민족 음악을 넘은, 어둡고 중량감 있는 소리 말입니다. 그쪽에 핏줄을 두고 있는 음악가들이 드레스덴 오케스트라에 다수 재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덕분에 독특한 음색이 온축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악단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가리켜 독일 특유의 음색이라고 합니다." 잔데를링은 덧붙여서 드레스덴의 정치적 상황도 원인중 하나라 주장한다. "최근 40년 간 드레스덴은 주변 정치 상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이 음악 전통을 유지하는데 도움 되었습니다.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조류에 휩쓸리고 있지만, 우리는 무심한 편입니다."

그렇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음향 비밀 한가운데에는 전통이라는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소리의 독자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악단의 기질을 자랑으로 내세워도 부끄럼 없습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참으로 특별한 오케스트라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서, 우리는 이른바 마법의 '드레스덴 사운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중후하고 깊고 풍부한 소리. 어떤 지휘자든 드레스덴 필하모닉을 처음으로 지휘하면, 이 사운드에 놀랍니다. 압도됩니다." 미하엘 잔데를링은 당당하게 오케스트라의 강점을 해설하고 있다. 더불어 단원들의 의욕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칭찬한다. "오케스트라 멤버 전원이 의욕에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 적극적으로 애씁니다. 날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만끽하며, 어젯밤 연주를 그대로 반복하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레스덴의 청중은 자신들의 고향에 뿌리박고 있는 단원들이 진솔한 마음으로 용해해내는 끈기와 질감의 음향을 사랑한다. 보다 국제적인 성격의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가 있음에도 개성이 확연히 다른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존재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역사는 실제로 길다. 무려 140년이 넘는다. 베를린 필하모닉이나 뮌헨 필하모닉보다 오래된 것으로 1870년 드레스덴시가 중산층 시민 계급을 위하여 기금 조성, 악단을 창설했다. 11월 29일 개관한 음악당에서 첫 공연을 열었으며, 게베르베하우스 잘이라는 연주회장 명칭을 빌려 게베르베하우스 오케스트라라 호칭했다. 헤르만 만스펠트, 미하엘 짐메르만, 에르네스트 슈탈, 아우구스트 트렌클러, 윌리 올센 등 초창기 수장들은 대부분 이름조차 생소한 사람들이었지만, 객원 지휘자들이 거물급이었다. 요하네스 브람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등과 같은 작곡가, 아르투르 니키쉬, 헤르만 아벤트로트, 에리히 클라이버, 한스 크나퍼츠투쉬 등과 같은 포디엄의 젊은 황제들이 지휘대에 올랐다. 1915년에는 시 차원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오케스트라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요제프 구스타프 므라첵(1878-1944)이 예술감독으로 근무한 1923년에서 1924년 사이, 오케스트라는 재정 위기로 흔들렸다.

구 동독 최고의 거장들이 거쳐가다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낸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1930년대 들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네덜란드계 지휘자인 파울 판 캠펜(1893-1955)이 오케스트라를 이끌면서부터였다. 1932년 독일로 건너와 시민권을 취득한 판 캠펜은 1934년 예술감독으로 부임, 탁월한 지도력으로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명성을 독일과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혼란기 동안에는 카를 슈리히트(1880-1967)가 스위스로 이주하기 직전인 1944년 9월까지 오케스트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았다. 1945년 2월, 연합군의 드레스덴 대규모 무차별 폭격으로 시 전체가 참혹하게 파괴되었지만,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불과 몇 개월 뒤에 게르하르트 바이젠후터(1912-1978)와 콘서트 활동을 재개했다. 1947년은 본격적인 부활의 해였다. 7월 1일 신임 예술감독으로 추대된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하인츠 본가르츠(1894-1989)는 빠른 시일 내에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위상을 원상 복구시켰다.

본가르츠의 인솔 하에 오케스트라는 해외 투어도 다녀왔다. 공연 횟수와 수준 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독일 민주 공화국(DDR), 즉 구 동독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로 부상한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당대 제일가는 거장들이 포스트를 거쳐가며 발전을 거듭했다. 1967년에서 1972년 사이에는 현재도 생존해 있는 노장 쿠르트 마주어(1927-)가 수석 지휘자로 근무했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드레스덴 필하모닉 합창단이 조직되어 1970년 10월 첫 번째 연주회를 가졌다. 악단의 본거지를 다시 쿨투어팔라스트(문화 궁전)로 옮기게 되었다. 1972년에서 1976년 사이에는 헤르만 아벤트로트의 수제자 귄터 헤르비히(1931-)가 수석직을 인계했다. 커리어에 비해서 레코드가 적어서 그렇지만, 헤르비히는 한스 슈미트 이세르슈테트(1900-1973)이나 프란츠 콘비츠니(1901-1962)와 흡사한 정통파 스타일의 베토벤을 뽑아내는 베테랑 지휘자였다. 외국 연주여행을 계속해서 시행했음은 물론이다.

1977년부터는 라이프치히 방송교향악단을 탑 클래스 레벨로 업그레이드

시킨 천재 지휘자 헤르베르트 케겔(1920-1990)이 음악감독으로 등장했다. 그는 본가르츠 이후 주로 베토벤이나 브람스 등과 같은 독일 고전파 음악과 낭만파 음악 연주에 익숙해있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에 20세기 음악과 동시대 구 동독 출신 작곡가들이 쓴 현대 음악 연주법을 이식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쇤베르크 '구레의 노래', 브리튼 전쟁 레퀴엠, 보리스 블라허(1903-1975) 오라토리오 '대심판관', 파울 데사우(1894-1979) 관현악 작품 등이 공연되고 레코드로 제작되었다. 그것 만이겠는가. 케겔은 베토벤 교향곡 전집 등 일반 레퍼토리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이룩했다. 하지만 관객들의 반발과 시의회 의 음모에 부딪쳐 1985년 종식 객원 지휘자라는 이상한 직함을 달고 밀려났다. 그래서 1986년에서 1993년 사이에는 요르크 피터 바이글(1953-)이 케겔의 빈자리를 메웠다.

1990년 10월 나라가 독일 연방 공화국(구 서독)에 합병되며 재차 소용돌이 속에 휩쓸렸으나,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미셸 플라송(1933-)을 새로이 수석 지휘자로 영입하여 탈출을 모색했다. 라틴 음악 옹호자를 자처하는 프랑스 출신 인물이라 세인들의 우려가 만만치 않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좀더 명석하고 유창한 톤으로 탈바꿈한 오케스트라는 리스트 교향시 앨범과 보로딘 교향곡 앨범 등으로 걱정을 깔끔하게 잠재웠다. 2001년부터는 거장 마레크 야노프스키(1939-)가 예술감독 겸 수석 지휘자로 취임하였으나, 전용 홀 공사가 늦어지자 발끈하여 2004년 자진 사퇴했다. 다행히 독일과 스페인의 피가 반반 섞인 거장 라파엘 프뤼베크 데 브루고스(1933-)가 야노프스키가 책임졌던 막중한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그는 지난 내한 공연 때 무대에 등장하여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현대적 지성으로 과거를 용해하는 신세기의 명장

아버지와 아들 세 명이 모두 지휘를 업으로 삼고 있다. 20세기 지휘계 최고의 거인 중 한 명인 쿠르트 잔데를링(1912-2011)의 셋째 아들인 미하일 잔데를링. 그는 세세한 얼굴 표정과 왼손 움직임이 아버지 쿠르트 잔데를링을 똑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외모는 키가 훗칠하고 몸매는 호리호리하며, 팔다리가 긴 귀공자풍 미남자지만 말이다. 지휘 스타일 또한 '정직한 독일인'을 지향한다. 즉흥적인 번쩍임이나 화려한 퍼포먼스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음악 흐름과 귀족적인 풍격과 황적인 밸런스를 중시하는 타입이다. 그럼에도 연주에 임하며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도외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을 지휘한 차이콥스키 교향곡 1번 '겨울날의 환상' 2009년 2월 20일 실황이나 같은 날 공연한 무소륵스키 교향시 '민둥산의 하룻밤' 실황을 들어 보라. 리듬감이 선명하고 표현력이 극적이라는 면에서 그는 아버지나 이복 만형 토마스 잔데를링(1942-), 혹은 슈테판 잔데를링(1964-)보다는 명장 루돌프 켐페(1910-1976)를 상기시킨다.

미하일 잔데를링 본인도 인터뷰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관건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전통입니다. 그렇지만 전통은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연주 방식을 계속 답습하면 음악이 따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립된 주법을 고수하는 동시에, 마주하는 작품의 가능성을 넓게 타진하고 디테일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곡이 바로크 음악인가, 고전 음악인가, 근현대 음악인가에 따라서 주법이 적절한지 생각합니다.", "아버님

께서 제 베토벤 교향곡 7번 콘서트를 듣고 오늘의 연주는 당신이 평소 믿는 것과 전혀 달랐다고 놀라신 적이 있습니다. 화를 내시지 않고 다음에는 당신도 제가 한 것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하셨습니다.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란 완강히 존재하는 그 무엇이며, 그것을 매일, 매주, 매월, 얼마든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잔데를링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음악 해석을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음악가이므로 약력을 간단히 소개한다. 미하일 잔데를링의 예술 인생은 첼리스트와 지휘자, 크게 둘로 나뉜다. 1967년 베를린 생으로 더블베이스 주자인 어머니 바바라 잔데를링의 영향을 받아 다섯 살에 첼로 레슨을 시작했다. 열일곱 살에는 한스 아이슬러 음악 고등학교에 입학, 요제프 슈바브에게 첼로를 사사했다. 1987년 마리아 카날스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하여 두각을 드러냈고, 곧바로 솔리스트로 데뷔했다. 같은 해 쿠르트 마주어가 통솔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계약을 맺고 5년 간 솔로 첼리스트로 생활했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객원 솔로 첼리스트로 연주를 했다. 그러므로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수장을 역임한 쿠르트 마주어와 라파엘 프뤼베크 데 브루고스, 마레크 야노프스키가 수석 지휘자로 활동한 오케스트라들과 긴 세월 협연을 한 셈이다. 묘한 인연이라 하겠다.

바통을 처음으로 잡은 시기는 그의 나이 서른 네 살 때였다. 2001년 11월 22일 베를린 캄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 공연을 가졌다. 2003년 도이체 슈트라이허 필하모니의 수석 지휘자로 선출된 것을 계기로 첼로에 손을 놓고 지휘에 전념하기로 작심하게 되었다. "첼로 연주를 지속하려면 충분히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의 첼리스트 시대는 끝났습니다."라 못을 박았다.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포츠담 캄머 아카데미의 수석 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근무했으며, 2009년 소니 클래식 레이블에서 동 오케스트라와 연주한 쇼스타코비치 작품집을 출시, 레코드 부문에서도 지휘자로서 얼굴을 나타냈다. 2011/2012 시즌부터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가 되어 웅비를 펼치고 있다. 한편으로 잔데를링은 후학 양성에도 관심이 많다.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와 베른에서 음대 교수를 지낸 바 있다.

예술 분야의 심도 있는 비평으로 독일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지는 미하일 잔데를링의 지휘를 가리켜 '대단히 엄중하다'라 절찬했다. 노이에 취리히 차이퉁지는 그를 '위대한 음향 설계가'라 규정했다. 116명 단원으로 구성된 유서 깊은 명문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신시대의 독일 마에스트로로 신망을 얻고 있는 미하일 잔데를링의 결합은 과연 어떠한가. 오늘, 우리에게 21세기를 빛낼 황금 콤비의 명연주를 목격하고 기억하고 증언하는 책무가 주어졌다.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곤두세워 관람해야 마땅하리라.

독일 전통의 음향을 만끽하라!

글: 송진명 (음악 칼럼니스트, 치과의사)

올해는 유난히도 굵직한 해외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이 많은 해다. 심지어 고령으로 인해 영영 한국을 찾지 못할 것 같았던 마에스트로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최상의 파트너와 함께 노구를 이끌고 베토벤 7번과 브루크너 9번 등을 들려주었다. 애호가들은 이쯤해서 만족해도 충분하련만, 이후에도 베를린 필(사이먼 래틀), 도이치 캄머필(파보 예르비) 등 기대되는 공연이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니 호사가 아닐 수 없다. 이중 후반기를 크게 빛낼 공연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지휘자 미하일 잔데를링과 드레스덴 필하모닉,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의 내한 공연이다.

언제부터인가 국제화라는 추세와 콩쿠르 출신 지휘자들의 전방위적 활동으로 인해 세계의 오케스트라들은 그 지역적 특성, 즉 고유의 전통적 음향이 퇴색하며 사실상 거의 비슷비슷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음악 해석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획득한 반면, 이러한 현상이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애호가들에게 무척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럼에도 몇몇 오케스트라들은 여전히 지역에 근거한 전통적인 보수성, 즉 좋은 의미의 '건실하면서도 건강한 보수적 음향'을 곳곳이 간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그런 경우가 될 것이며, 독일 작센 지방의 중심 도시이자 오래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예술 고도古都 드레스덴의 슈타츠크펠레(국립극장 관현악단), 그리고 이번에 내한 공연을 펼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또한 그러하다.

1870년 11월 29일 창단 연주회를 가진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당시에는 콘서트홀의 이름을 딴 게베르베하우스오케스트라Gewerbehauseorchester로 불리다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시작한 1915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수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대의 작곡가들, 이를 테면 브람스, 드보르작, R. 슈트라우스, 차이콥스키 등이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 자신의 곡을 지휘했으며, 특히 1934년부터 1942년까지 이끌었던 독일의 마에스트로 파울 반 켐펜에 의해 악단의 수준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이후 칼 슈리히트, 하인츠 봉가르츠, 쿠르트 마주어, 귄터 헤르비히, 헤르베르트 케겔, 미셸 플라송, 마렉 야노프스키,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 등 이름만 들어도 놀라운 대가들이 오케스트라를 이끌어왔으며, 2011년부터는 독일 출신의 미하일 잔데를링이 수석지휘자를 맡아 활발한 공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개인적인 기억으로 2008년 드레스덴 필하모닉이 노장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와 함께 내한하여 펼친 공연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 여러 프로그램들 중 특히 브람스 4번의 경우 외향적 화려함을 배제한 채 브람스 만년의 심경을 절절하게 표현해내는 수연을 펼쳐내던 순간을 어찌 잊겠는가. 음반으로만 확인했던 이들의 웅혼한 예술혼이 전통의 맥락에서 지금도 묵묵히 전해지고 있음을 생생히 느낀 경험이었다. 이 외에도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드레스덴의 유서 깊은 십자가합창단과 함께 2007년 내한하여 모차르트의

레퀴엠과 바흐의 마태수난곡을 연주했다. 역시 정격연주와는 방향을 달리 하는 전통적 해석의 뛰어난 연주였다.



전통의 악단 드레스덴 필을 이끄는 부전자전 지휘자 잔데를링

2009년 베를린의 콘체르트하우스Konzerthaus Berlin(과거의 Schauspielhaus)에서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베를린 심포니)의 공연을 볼 때의 일이다. 필자는 옆자리에 앉은 노부인과 함께 음악과 관련된 이런저런 재미난 얘기를 나누었는데, 마침 이분은 대지휘자 쿠르트 잔데를링은 물론 부인인 더블베이스주자 바바라 잔데를링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 주말에 잔데를링의 집에 놀러가서 식사를 한다, 작은 음악회를 한다는 등 사소하고 아기자기한 얘기들에 이어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쿠르트 잔데를링의 아들들로 이어졌는데 특히 미하일에 대해 두터운 신망과 더불어 칭찬을 아끼지 않던 모습도 떠오른다(형 토마스와 동생 슈테판 잔데를링 역시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하일 잔데를링은 쿠르트와 바바라 잔데를링 사이에서 태어났다. 1967년 베를린생. 재작년 타계한 아버지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장이었고, 어머니인 바바라 잔데를링의 경우 남겨놓은 음반이 극히 드물긴 해도 동독의 에테르나Eterna 레이블에서 발매된 더블베이스 작품집은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음악적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애청반이다. 이러한 부모의 음악성이 미하일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어렸을 때부터 첼로를 연주하던 미하일은 17세의 나이에 한스 아이슬러 음대에서

본 프 라 린 남 스 의

자 율 은 이 들 크 카 드 Au W 음 스 정

향을 달리

본격적으로 첼로 공부를 시작했으며, 당시 쿠르트 마주어가 이끄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등 우수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첼리스트로 활동하다 지휘자로 전향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휘자로서의 데뷔는 2001년 11월 베를린 필하모니홀에서 열렸던 베를린 실내관현악단과의 연주. 이번에 내한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니와의 첫 만남은 2005년이었으며, 2011년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에 이어 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수석지휘자로 부임하게 되니 2013년은 수석지휘자로서의 세 번째 시즌이다.



를링

Schaus-
니)의 공연
관련된 이
잔데를링
이 있었다.

한다는 등
쿠르트 잔
과 더불어
잔데를링 역

었다. 1967
이었고, 어
해도 동독
부드러우면
여한 부모의
어렸을 때
어대에서

재능 넘치는 바이올리니스트 울리아 피셔의 첫 내한

울리아 피셔야말로 경이로운 재능, 천재적이란 단어들만 전혀 어색하지 않은 뮌헨 출신의 여류 바이올리니스트다. 놀라운 것은 1983년생의 젊은 나이임에도 이미 연주와 음반에서의 성과는 과거의 여류 명바이올리니스트들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이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테크닉과 균형감이 울리아 피셔 연주에 있어서 음악적 근간을 이룬다. 에리카 모리니Erika Morini, 지오콘다 데 비토Gioconda de Vito, 자닌 앙드라드Janine Andrade, 지네트 느뵈Ginette Neveu, 미셸 오클레르Michèle Auclair, 요한나 마르치Johanna Martzy, 반다 빌코미르스카Wanda Wiłkomirska, 실비아 마르코비치Silvia Marcovici 등 선배 연주자들의 음반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 미묘한 뉘앙스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이에 더하여 필요에 따라 곡의 흐름에 맞게 열정을 분출해내는 능력으로 풍부하면서도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물론 학구적 논리성과 뛰어난 음악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피셔에게는 롤라 보베스코처럼 신파조의 사색도 없을뿐더러 이다 헨델에게서 가끔씩 나타나는 어눌한 발음도 없다. 기교와 과장만을 강조하여 끊임없이 자기주장만 펼치는 피곤한 스타일들과도 한참 거리가 멀다. 그녀는 음색 자체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 심을 정도로 건조함 없이 부드럽고 촉촉하다.

피셔는 2004년부터 시작하여 펜타톤 레이블에서 하차투리안, 프로코피예프, 글라주노프,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차이콥스키, 바흐, 멘델스존 등 11장의 녹음을 남겨놓았으며, 이들은 하나같이 평론가들 및 애호가들의 호평 속에서 많은 상들을 휩쓸었다. 이후 2008년 데카로 계약을 이동하여 쇼송, 바흐, 파가니니, 드보르작, 브루흐 등 4장의 음반과 생상과 그리그 협주곡 등 1장의 DVD를 추가하였다(그리그에서는 피아니스트로도 등장하여 더욱더 그녀의 천재성을 드러낸다). 내한 공연에서 잔데를링, 드레스덴 필하모니와 함께 연주할 곡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이 곡은 이미 펜타톤에서 음반 발매가 되었지만, 그 경우는 크라이츠베르크와 네덜란드 실내관현악단과의 협연이었기에 이번 공연을 통하여 정통 독일 연주자와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음향은 대단한 기대감을 끌어낸다. 협주자와 지휘자, 오케스트라가 함께 맞춰서 내한하는 경우에는 연주의 수준이 한껏 올라가는데, 이에 더하여 피셔-잔데를링-드레스덴 필은 실제로 2013-14 시즌 프로그램 상에 시벨리우스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 2중 협주곡을 올려놓고 있으니 이번 브람스 협주곡이야말로 금조된 협연이 아닌, 협연자와 오케스트라의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셈이다.

협주곡이 끝나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미하일의 지휘로는 동곡에 대한 음반이 없는 상태이기에 내한 공연은 그의 러시아 음악에 대한 재단 솜씨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버지인 쿠르트 잔데를링은 러시아에 독일 음악을 알렸고, 세상에는 러시아 음악을 적극적으로 알렸던 거장 중의 거장으로 독일의 전통적인 낭만성과 러시아의 요동치는 호방함을 분출시켰던 마에스트로였다(러시아에서 연주되고 있는 독일 음악의 전통은 칼 엘리아스베르크와 쿠르트 잔데를링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싶다). 쿠르트의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에 대해서는 여러 음반들이 남아있는데, 그중 베를린 필과 함께 한 1992년 실황 영상물 EuroArts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곡을 구축해가는 노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엮어서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어찌되었든 부자간의 음악적 연관성은 분명 살아남아 있으리라.

전통을 깊이 간직한 과거 동독악단의 웅골찬 품격이 자국 출신의 의욕적인 지휘자와 함께 만나 펼쳐내는 고색창연함!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풀어낼 충실하고도 세련된 연주가 어떠할지 실로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숨길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다.

* 이 글은 월간지 <예술의전당과 함께 Beautiful Life!> 10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율리아 피셔는 누구인가

글: 최은규 (음악 칼럼니스트)

오래 전 율리아 피셔의 바흐 음반을 처음 들었을 때의 놀라움은 아직도 생생하다. 잘 다듬어진 톤, 명확하고 섬세한 프레이징, 세련된 감정 표현을 담은 그 연주는 10대 소녀의 연주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성숙했다. 어린나 이서부터 바흐 음악의 음표 하나하나를 낱알이 이해하고 성부 간의 조화와 균형을 소리로 재현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지만, 나중에 피셔의 인터뷰 영상을 보며 그녀가 고전음악 해석에 뛰어날 수밖에 없는 까닭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비발디의 유명한 바이올린협주곡 '사계'를 녹음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솔로 파트뿐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 비올라 파트

를 연주해보고 어머니가 첼발로를 연주하는 걸 들으며 '사계'의 첼발로 파트까지 익혔다는 율리아 피셔. 그녀의 연주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비발디 '사계' 영상에서 선보인 피셔의 연주는 확신으로 가득하다. 지휘자 없이 오케스트라를 리드하며 솔로 파트를 연주하면서도 그녀의 음악은 오케스트라와 잘 어울려진다. 이는 악곡의 모든 성부를 낱알이 파악하고 작품 전체를 조망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넘나드는 균형감각

단지 바이올린뿐 아니라 피아노 연주에도 뛰어난 것은 피셔의 큰 장점이다. 몇 년 전 한 음악회에서 생상스의 바이올린협주곡 3번과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를 훌륭하게 연주해내며 경탄을 자아냈던 피셔에게 피아노는 바이올린만큼이나 중요한 악기다. 사실 그녀에게 피아노가 더 중요한 악기인지도 모른다. 네 살 때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피셔는 얼마 후 피아니스트인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피아노를 좋아

했던
주하
는 비
다
비르
노 연
대개
피셔
악기
율리
어보
나온
악해
성적
기이
갈 수
체의
향을
여그
인성
는 올
을보

모차
피셔
베르
한 모
계 악
무리
내가
덴차
마치
을 떠
그자
으로
그녀
운 색
아마
는 대
총살
선율
그 활
로 통
하는
움을

했던 피셔는 피아노도 배우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빠가 피아노를 연주하므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길 원했던 어머니의 소망에 따라 율리아 피셔는 바이올린 레슨을 계속 받았다. 그리고 1995년 열 두 살의 나이로 예후디 메뉴인 콩쿠르에 우승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한 그녀는 처음엔 바이올린 비르투오소로 알려졌지만, 차츰 연주회와 음반을 통해 그녀의 뛰어난 피아노 연주 솜씨도 선보이기 시작했다.

대개 하나의 악기에 익숙한 음악가들은 그 악기를 달기 마련이다. 그러나 피셔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모두 잘 알고 있기에 음악가로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0세기 명 바이올리니스트 예후디 메뉴인의 저서 <바이올린을 사랑하는 친구에게>를 읽어보면,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의 차이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온다. "피아니스트는 객관적으로 음을 듣고 표현방식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바이올리니스트보다 훨씬 많은 음표들을 소화해내면서도 다성적인 표현 능력에 뛰어나야" 하는 반면 "바이올린은 기본적으로 선율악기이므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아름다운 음색만 있으면 어떻게든 극복해나갈 수 있다." 따라서 음색을 갈고 닦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소리 자체의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바이올리니스트는 대개 감성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복잡한 성부구조를 파악하고 열 손가락을 재빠르게 움직여 그것을 소리로 재현해내야 하는 피아니스트는 좀 더 객관적이고 지성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모두를 훌륭하게 연주해낼 수 있는 율리아 피셔는 그의 연주를 통해 항상 지성과 감성이 조화된 균형감각을 보여주곤 한다.

모차르트와 슈베르트 음악에서 빛나는 피셔의 바이올린

피셔의 균형감각은 특히 고전적인 균형미가 요구되는 바흐와 모차르트, 슈베르트 등의 고전음악에서 빛난다. 네덜란드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협주곡 음반을 들어보면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악기를 울림을 만들어내는 그녀의 연주가 무척 돋보인다.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프레이징과 투명한 음색은 모차르트 음악의 우아한 감성을 살려 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특히 모차르트의 협주곡에서 그 자신이 작곡한 카덴차를 사용하는 점도 인상적이다.

마치 20세기 바이올린 거장 아르투르 그뤼미오의 자연스럽고 흠 없는 톤을 떠올리게 하는 피셔의 바이올린 톤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꿈꾸는 이상 그 자체다. 하지만 피셔가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도 항상 곱고 온화한 표정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다. 간단하고 사랑스러운 슈베르트의 소품에서도 그녀는 슈베르트의 음악 속에 언뜻언뜻 비쳐오는 어두운 그림자와 신비로운 색감을 놓치지 않는다.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곡을 담은 두 장의 음반은 아마도 바이올리니스트 피셔가 과연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인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음반일 것이다. 불필요한 템포 변화를 배제한 채 악보 자체에 충실한 그녀의 연주는 꾸밈없이 순수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슈베르트의 선율에 담긴 역동성을 잘 읽어내고 있어 그녀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어느새 그 활기와 추진력에 빠져들게 된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사이에선 난곡으로 통하는 슈베르트의 환상곡 C장조에서 슈베르트 선율의 깊은 맛을 음미하는 그녀의 연주를 듣다 보면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세부적인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파가니니 카프리스를 천상의 음악으로 바꾸다

아마도 피셔의 음반 가운데 가장 독특한 음반을 꼽는다면 파가니니의 무반주 바이올린 카프리스 음반일 것이다. 피셔는 악마적이며 기교적인 작품으로 여겨지던 파가니니의 카프리스를 쇼팽의 녹턴만큼이나 감미롭고 듣기 좋은 낭만주의 소품으로 재탄생시켰다. 사실 파가니니의 음악에는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를 능가하는 서정성과 섬세한 낭만주의가 깃들어 있음에도 연주를 통해 이를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기교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과장된 제스처와 악마적인 표정을 살려 기교적인 어려움을 감추려 하거나 테크닉의 정확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곤 한다. 하지만 피셔는 테크닉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다. 피셔에게 있어 테크닉보다 음악이 더 우선하고 있음은 카프리스의 첫 곡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카프리스 전 24곡 중 제1번은 활을 튀어 오르듯 연주하는 '리코세' 주법으로 연주하게 되어있는 곡이지만 피셔는 그런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때로는 활을 붙여 펼친 화음을 연주하며 악곡 전체의 큰 움직임을 잘 드러내준다. 음악의 역동적인 흐름을 잘 잡아낸 그녀의 연주를 듣고 있노라면 피셔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기교가 아니라 음악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 공연이 기대되는 이유

율리아 피셔가 오는 30일 드레스덴 필하모니와의 내한공연에서 연주하는 브람스의 바이올린협주곡은 그녀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곡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된다. 대개 브람스의 음악은 중후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피셔의 브람스 바이올린협주곡 음반을 들어보면 그녀의 톤은 눈부시도록 밝고 찬란하다. 그 음색은 충실하면서도 무겁지 않고 강렬하면서도 예민하다. 또한 거침없이 앞으로 향하는 템포감각과 활기 넘치는 리듬감은 브람스의 음악 속에 담긴 강한 활력을 꼬집어낸다. 대개 한 음 한 음 무겁고 충실하게 연주되곤 하는 브람스 해석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엎는 연주다. 아마도 이번 공연에서 율리아 피셔의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 브람스 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음반이나 영상, 그리고 여러 음악회 무대를 통해 완벽에 가까운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 율리아 피셔는, 한 인터뷰에서 그녀에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완벽주의자'란 말에 대해 흥미로운 말을 남겼다.

"저 자신을 한번도 완벽주의자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저 그날 저녁 저의 최선을 다하려고 할 뿐이고, 연주가 완벽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음악에서 완벽이란 말은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무대에서나 빈틈없는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 피셔 자신은 완벽함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 의외다. 아마도 그녀가 완벽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로지 관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기에 그녀의 연주가 더욱 완벽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내한공연에서 완벽함을 버려 더욱 완벽해진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의 훌륭한 연주를 기대해 본다.

발로 파
건 당연
가득하
그녀의
이 파악

점이다.
피아노
피아노는
한 악기
는 얼마
를 좋아

품격있는 애호가들이 지지하는 진정한 바흐 스페셜리스트



MARTIN STADTFELD PIANO RECITAL

마르틴 슈타트펠트

피아노 리사이틀

PROGRAM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권

2013.11.3(SUN)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VINCERO 티켓 R8만원 S6만원 A4만원 예매 SAC⁺Ticket 02.580.1300 YES24.COM 1544.6399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02.599

클래식의 퍼스트레이디
 현존 최고의
 메조소프라노

MAGDALENA KOŽENÁ CONCERT

막달레나 코제나

Lettere Amoroze

ENSEMBLE

프리바테 무지케 (Private Musicke)

PROGRAM

비탈리: 마드리갈, 아름다운 눈동자여, 던디아: 무정한 아마릴리, 온화한 산들 바람은 뒤로 외

2013.11.19(TUE)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VINCERO 후원  문의 02.599.5743

티켓 R 15만원 S 12만원 A 8만원 B 5만원 예매 SAC[™]Ticket 02.580.1300 YES²⁴.COM 1544.6399 인터파크 1544.1555

VINCERO

베토벤 교향곡 전곡 프로젝트의 신화
파보 예르비의 오케스트라, 그 역사적 내한!

도이치 캄머필하모닉

DIE DEUTSCHE KAMMERPHILHARMONIE BREMEN

파보 예르비, 음악감독

PAAVO JÄRVI, MUSIC DIRECTOR

프로그램 | PROGRAM

- 12.4 | 베토벤 '피델리오'서곡, 교향곡 7·3번 | Beethoven 'Fidelio' Overture, Symphony No.7, No.3
- 12.5 | 베토벤 '프로메테우스'서곡, 교향곡 4·5번 | Beethoven 'Prometheus' Overture, Symphony No.4, No.5

2013. **12.4(WED) & 12.5(THU)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VINCERO 문의 02.599.5743

티켓 R 22만원 S 17만원 A 12만원 B 8만원 C 5만원 예매 SAC*Ticket 02.580.1300 YES24.COM 1544.6399 인터파크 1544.1555

케스트

VINCERO

VINC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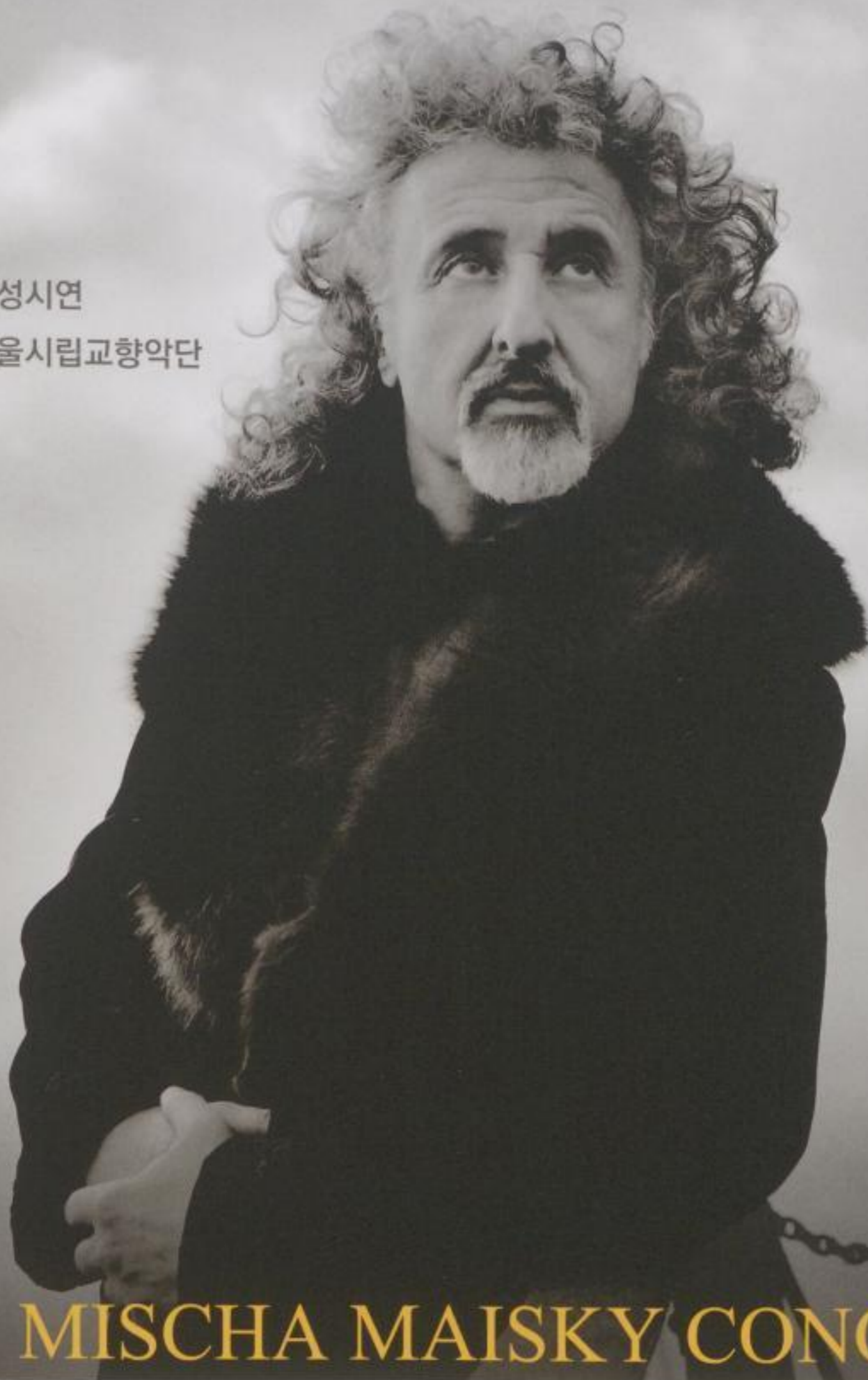
미샤 마이스키

3 CONCERTOS

브루흐 · 생상스 · 드보르 작

지휘 | 성시연

케스트라 | 서울시립교향악단



MISCHA MAISKY CONCERT with Seoul Philharmonic

2013.12.11 (WED)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VINCERO 티켓 R 15만원 S 12만원 A 8만원 B 5만원 예매 SACTMTicket 02.580.1300 YES24.COM 1544.6399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02.599.5743

1555

VINCERO



테크닉과 위트의 블렌딩, 놓쳐서는 안될 골든 하모니

캐나디언 브라스

크리스마스 콘서트

CANADIAN BRASS

바흐에서 비틀즈까지

2013.12.10(TUE)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VINCERO 티켓 R 12만원 S 9만원 A 6만원 B 4만원 예매 SAC Ticket 02.580.1300 YES24.COM 1544.6399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02.580.1300



지휘 | 다니엘 하딩 Daniel Harding

협연 | 김선욱 Sunwook Kim




LSO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2014
London Symphony Orchestra

PROGRAM

3.10 | 무소르그스키 '민둥산의 하룻밤',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 스트라빈스키 '페트로슈카'

3.11 |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2번(협연: 김선욱), 말러 교향곡 1번

2014.3.10(MON) & 3.11(TUE)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hell is proud to sponsor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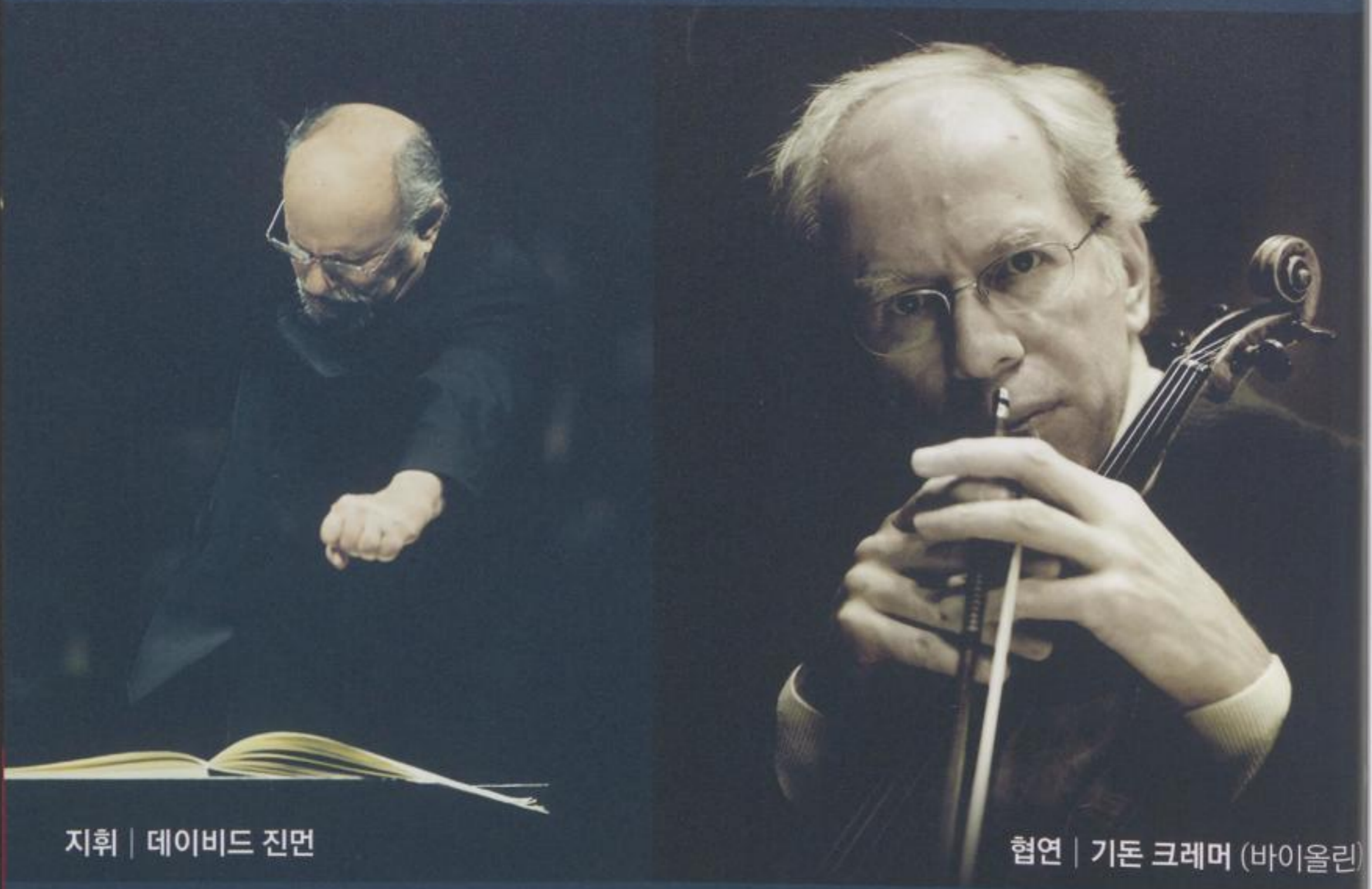
주최 VINCERO 문의 02.599.5743

티켓 3.10 R 30만원 S 22만원 A 17만원 B 11만원 C 6만원 3.11 R 32만원 S 23만원 A 18만원 B 12만원 C 7만원

예매 SAC[™] Ticket 02.580.1300 YES²⁴.COM 1544.6399 인터파크 1544.1555

VINCERO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명장 기돈 크레머의 첫 콘체르토



지휘 | 데이비드 진먼

협연 | 기돈 크레머 (바이올린)

TONHALLE ORCHESTER ZÜRICH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 베토벤: '프로메테우스' 서곡 & 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 교향곡 4번

2014.4.21 (MON)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VINCERO 티켓 R 24만원 S 18만원 A 12만원 B 8만원 C 5만원 예매 SAC⁺Ticket 02.580.1300 YES24.COM 1544.6399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02.599

U
2
빈 슈
Stra
일시 20
콜른
Köln
일시 20
안젤라
Ang
일시 20
런던
Lond
일시 20
지휘 다
류이치
Ryui
일시 20

김선영
Sunv
일시 20
몬트리
Orch
일시 20
마리
Sym
일시 20
지휘 마
도이
The
일시 20
지휘 파
핑크
Pink
일시 20

놓칠 수 없는 클래식 감동, 빈체로

UPCOMING CONCERTS

2014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Strauss Festival Orchestra of Vienna, New Year's Concert

일시 2014년 1월 16일(목)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협연 홍혜란(소프라노)

켈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Kölner Philharmoniker

일시 2014년 2월 15일(토)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마르쿠스 슈텐츠 협연 자비네 마이어(플라리넷)

안젤라 휴이트 피아노 리사이틀
Angela Hewitt Piano Recital

일시 2014년 2월 25일(화)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London Symphony Orchestra

일시 2014년 3월 10일(월), 11일(화)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다니엘 하딩 협연 김선욱(3월 11일 협연)

류이치 사카모토
Ryuichi Sakamoto Concert | Playing the Orchestra

일시 2014년 4월 17일(목) 8PM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다니엘 하딩

류이치 사카모토

데이비드 찬만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Tonhalle-Orchester Zürich

일시 2014년 4월 21일(월)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데이비드 찬만 협연 기돈 크레메(바이올린)

파비오 비온디 & 에우로파 갈란테
Fabio Biondi & Europa Galan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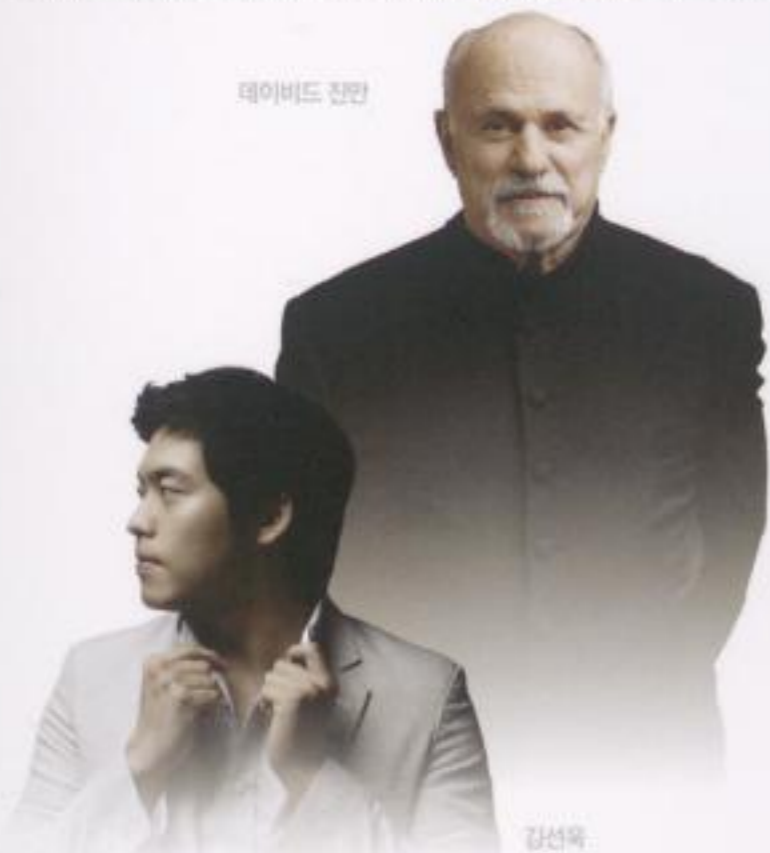
일시 2014년 5월 7일(수)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바이마르 슈타츠키펠레 오케스트라
Staatskapelle Weimar

일시 2014년 6월 16일(월), 17일(화)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스테판 솔리움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Orchestra de la Suisse Romande

일시 2014년 7월 15일(화)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가즈키 야마다 협연 클라라 주미 강(바이올린)



김선욱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Sunwook Kim Piano Recital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Orchestre Symphonique De Montreal

일시 2014년 10월 7일(화), 8일(수)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켄트 나가노 협연 보리스 베레조프스키(피아노)

마리스 안손스 &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일시 2014년 11월 18일(화), 19일(수)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마리스 안손스 협연 크리스티안 침머만(피아노)

도이치 캄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The Deutsche Kammerphilharmonie Bremen

일시 2014년 12월 2일(화), 3일(수), 4일(목)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파보 예르비 협연 크리스티안 테슬라프(바이올린), 탄야 테슬라프(첼로)

핑크 마티니 크리스마스 콘서트
Pink Martini Christmas Concert

일시 2014년 12월중 장소 미정



마리스 안손스

파보 예르비

빈체로 홈페이지에서 10% 할인 받고 공연 소식이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세요.

빈체로 02 599 5743 www.vincero.co.kr [twitter](#) @_Vincero [facebook](#) www.fb.com/vincero

VINCERO

문의 02.599

빈체로

VINCERO Arts Management & Entertainment
www.vincero.co.kr